

역사적 사건, 새로운 성장 스토리의 출발점

과거와 달리 금번 남북 정상회담은 향후 역사적 사건들의 예고편적 성격 실적 가측성이 낮을 때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 대한 스토리 투자가 유리 남북경협을 테마의 축매로 한정하기보다는 저평가주 재조명의 기제로 사용

1. 역사적 사건인 정상회담은 당연히 증시에도 투영

남북정상회담,
역사적 사건으로
증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이어질 전망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고, 곧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는 이제 핵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의 남북관계 변화가 물고 올 파장은 아직 상상의 영역이다. 앞으로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인미답의 새로운 변화가 진행될 것이다. 당연히 증시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요인 중의 하나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가치평가의 잣대도 변화할 것이다.

‘뉴스에 팔아라’
과속상태에 들어선
남북 경협주

반면 단기적으로는 남북 해빙무드로 인한 경제협력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격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로 초강세를 보인 종목들은 언제든지 차익매물이 대거 출회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40여개로 구성한 남북경협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코스피 대비 초과수익률이 100%P에 육박하는 등 주가가 유례 없는 과속상태에 들어서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림 1] 코스피 대비 남북경협 관련주의 초과수익률



주: 코스피 대비 남북경협주의 초과수익률은 남북경협 관련 32개 종목의 평균주가로 산출
자료: 와이즈에프엔, 한국투자증권

대북 관련주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 예상

하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일회성에 그쳤던 과거 정상회담과는 달리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 선언, 종전선언 등 역사적 후속 조치에 이어 대북 제재 완화, 북미 수교 등의 이슈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대북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전격발표, 폼페이 국무장관 지명자의 북한방문 사실,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된 철도와 도로 연결 등과 같이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보도되었을 때 대북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연출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남북 및 북미 관계에 파격적인 조치가 단행될 경우에 대북 관련주들은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움직임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하지만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대응에 영역이라는 점에서, 시세분출이 진행된 개별종목들의 상당수는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급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과도한 낙관적 편향성을 제어해야 할 필요는 있다.

〈표 1〉 대북 관련 주요 일정

일정	내용
5월 1일	확성기 방송, 전단살포 등 적대적 행위 중단
5월 5일	남북 표준시 통일
5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
5월 중	북한 핵실험장 폐쇄, 장성급 군사회담
5월 말	북미 정상회담
8월 15일 전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
8월 18일 ~ 9월 2일	아시안게임 단일팀 출전
9월 ~ 11월	문재인 대통령 방북, 임기 내 2차 정상회담
연중	개성연락사무소 설치
연중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추진
연중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환
연중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 적극 추진 (동해선, 경인선 철도, 도로 연결 등)

자료: 언론사 보도

2. 대외적 불확실성과 계절적 특수성이 투자심리를 제약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와 미·중 무역전쟁의 불씨는 여전

한편 2월 초와 3월 중순 글로벌 증시 급락세의 촉매역할을 했던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와 미·중 무역전쟁의 불씨가 여전한 가운데 증동의 지정학적 불안, 국제유가 상승세 등도 투자심리를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외환시장은 북한 리스크 완화에도 불구하고 원화가격은 연일 하락세를 타며 4월 하순에는 달러당 1,080원선을 넘어서는 등 남북 해빙무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OECD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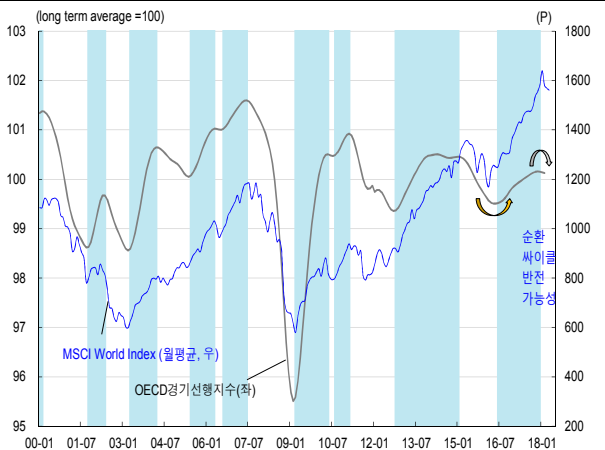
또한 지난 3월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3.9%로 발표, 2017년 11월 전망치 대비 0.3%포인트 상향 조정했지만, 통상 실물 경기보다 6개월에서 9개월 가량 선행하는 OECD경기선행지수는 둔화 조짐을 연출하고 있다. OECD경기선행지수와 세계주가의 동조성을 감안할 때 OECD경기선행지수가 하강 사이클로 진입할 경우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 우리증시도 낙관하기는 어렵다. 물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축소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감안할 때 글로벌 증시와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미국 국채금리의
추세적 상승국면
진입 가능성 상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돌파해 201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 초 글로벌 증시가 미국 국채 10년물의 목선(Neck-Line) 돌파에 따른 금리상승 가속화 우려로 급락세를 보였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기술적 · 심리적 저항선인 3%선을 돌파해 안착할 경우에는 분명 우리 증시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이에 더해 Fed는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최대 100억 달러의 보유 자산을 축소하고 있는데다, 트럼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풀면서 채권 시장에 공급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역헤드앤숄더(Inverse Head and Shoulder) 패턴을 완성한 만큼 미국 국채 금리가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추세적 상승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2] OECD경기선행지수와 세계주가 추이



주: 음영부분은 OECD경기선행지수가 상승 사이클을 보인 기간을 표시
자료: 데이터스트림, 한국투자증권

[그림 3] 3%선을 넘나들고 있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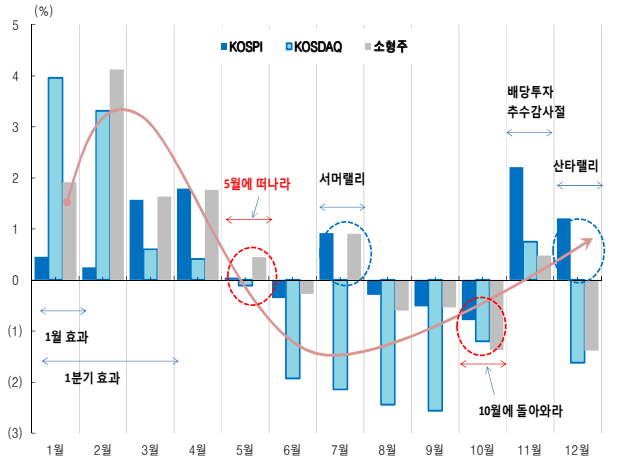
자료: 연함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Sell In May’의
계절적 경험칙도
투자심리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

더구나 계절적 특수성도 투자심리를 제약할 수 있다. 통상 1분기 중 강세를 보이던 증시는 5월 기점으로 10월까지 약세를 보이는 경향성이 강하다. 2000년 이후 코스피, 코스닥, 소형주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보면, 평균 수익률이 5월을 분기점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11월이 되어야 다시 플러스권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5월에 팔고 떠나라(Sell In May, and go away)’는 월가(Wall Street)의 격언이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절적 특수성과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5월에도 투자자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플레이를 고수할 공산이 크다. 바이오주들의 차익매물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남북경협 관련주들의 시세분출과정이 연출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소형주지수는 연중 최고치 행진을, 코스닥 스몰캡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코스피/코스닥/소형주의 월별 평균 등락률



주: 등락률 추이는 2000년~2017년중 월별 등락률의 산술평균값
 자료: 데이터스트림,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코스닥 스몰캡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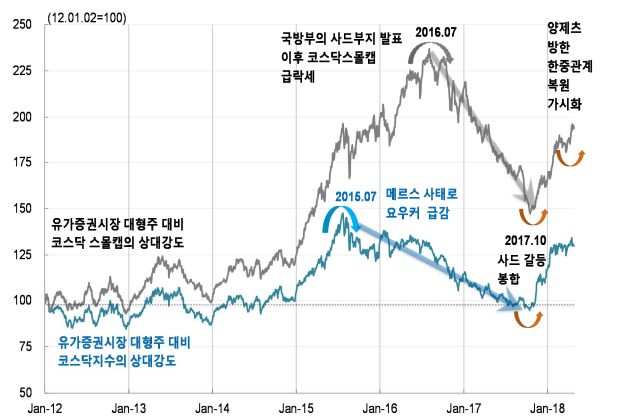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3. 실적 가측성이 낮을 때는 스토리 투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주 품귀현상은
 구조적인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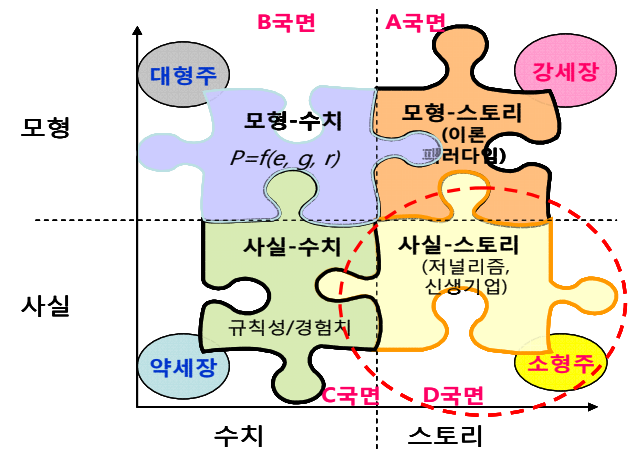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저성장 구조의 고착화로 성장주에 대한 구조적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성장주 찾기에 주력하면서 중국 성장 스토리가 핵심적인 시장 키워드로 작동하고 있다. 실제로 메르스에 따른 요우커 급감과 사드부지로 인한 한·중 간의 갈등과 봉합이라는 정치·사회적 사건이 코스닥지수와 코스닥 스몰캡지수의 방향성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시장 불확실성이 높고 실적 가측성이 낮을 때 투자자들은 스토리 투자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그림 6] 대중 관계가 코스닥/스몰캡의 상대강도를 좌우



자료: 와이즈에프엔, 한국투자증권

[그림 7] 국면별 주류 투자유형 구분



자료: 한국투자증권

**남북경협은
새로운 성장 스토리의
키워드로 작동할 전망**

북한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성장 스토리도 중소형주 투자와 관련해서 상당한 과급력을 형성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통상 수치에 기반한 전망치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할 때에는 기초 사실을 토대로 형성된 스토리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다양한 스토리 투자를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의 시장 상황이 실적 가측성이 높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림 6>의 B국면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에 기반한 성장 스토리 투자가 주류를 이루는 <그림 6>의 D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북한과 관련한 뉴스가 끝난 것이 아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에 이어 비핵화 과정, 유엔제재의 해제와 북한경제 개발과 관련한 뉴스 플로우의 이제 출발선을 떠났을 뿐이다.

<표 2> 4·27 판문점 선언 요약

남북은 오랜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합의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개선 및 발전 이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족 자주 원칙 확인 및 기존의 합의 철저히 이행 2) 고위급회담 등을 통한 적극적 대책 수립 3)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4)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 및 교류 활성화 5)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6)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 적극 추진,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 대책 수립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해 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2)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지정 3) 교류와 접촉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수립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력 불사용에 따른 불가침 합의 준수 2) 단계적 군축 실현 3) 올해 내 종전선언, 평화체제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4) 한반도 비핵화

자료: 언론사 보도

**남북경협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 제고**

4. 경험 스토리를 내재한 산업 내 저평가주에 집중

북한이 핵무기 개발 대신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기존 남북 공동사업이 재개되는 것뿐 아니라 북한의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기회가 모색될 전망이다. 특히 낙후된 철도, 도로, 항만, 주택 등 각종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우선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경협과 관련한 산업들은 성장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산업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내의 경쟁구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커 일부 업체들에게는 분명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북한 인프라 개발이 본격화되려면 주지하다시피 완전 비핵화는 물론 유엔제재의 해제와 함께 북한의 시장개방 결단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과 국제기구의 사찰 및 검증에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는 성급한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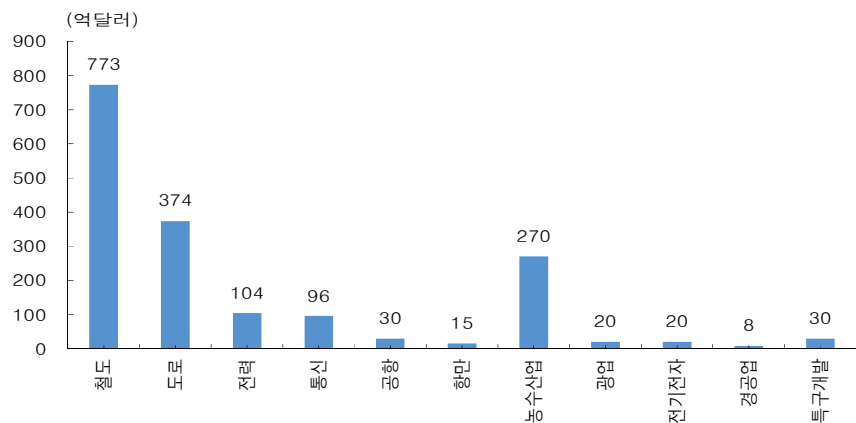
비핵화와 경제협력은 동전의 양면

하지만 비핵화와 경제협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평화체제의 공고화는 남북 경제협력 관계의 고도화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남북경협 관련주의 주가 급등세를 백안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과를 내면 북한의 경제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장기 성장세를 근거로 제약, 바이오에 집중되었던 시장 매기가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장착한 남북경협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중국 성장 스토리 이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장 스토리가 될 수 있다. 이번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성장 스토리와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축소 차원에서 다양한 산업에서의 재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 남북경협이라는 성장 키워드를 테마의 축매로 한정해 해석하기보다는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주들에 대한 재조명의 기제로 넓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해빙은 저평가된 SOC 관련주의 재조명 기제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각종 인프라 구축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금융위원회의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 과제’에서 북한의 인프라 개발 비용을 철도 773억달러, 도로 374억달러로 산업 육성 비용으로는 농수산업에 27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관문점 선언을 통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에 활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4월 30일 철도, 도로 등 SOC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였다. 현재 시장 매기가 남북경협과 연관도가 높은 SOC관련주들에 집중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남북경협 스토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축소와 맞물리며 내재가치보다 저평가된 중소형주들로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 관점에서 남북경협 스토리를 내재할 수 있는 산업 내 저평가주에 대한 길목지키기 전략도 무리 없는 선택지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림 8] 주요 인프라 및 산업육성 재원규모(추정)



자료: 2014년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의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한국투자증권

<표 3-1> 남북경협 관련주

(단위: 억원, 배)

분류	종목명	시가 총액	TTM		비고
			P/E	P/B	
개성공단	남광토건	2,943	150.5	1.5	개성공단에 지사를 설립, 철골공장 및 대북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하던 기업. 토목, 건축, 주택사업 영위
	신원	2,564	N/A	0.5	의류 OEM수출 및 BESTI BELL, SIEG 등 브랜드 사업 영위.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경력 보유
	좋은사람들	1,881	N/A	1.8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내의류 제조 및 판매 기업으로 보디가드, 에스 등의 브랜드를 보유
	제이에스티나	1,692	N/A	1.4	손목시계, 주얼리 등 악세서리 제조 기업으로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경력 보유
	재영솔루텍	1,508	N/A	1.0	핸드폰카메라 모듈 및 반도체 검사용 소켓 생산 기업으로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업체
	인디에프	1,730	209.8	1.1	글로벌세아 그룹의 계열사로, 인디에프개성을 통해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의류제조업체
	인지컨트롤스	1,105	N/A	0.2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개성공단에 위치한 계열사인 인지개성의 지분 100%를 보유
금강산관광	에머슨퍼시픽	6,207	236.5	0.8	골프레저 업체로 금강산 아나티 골프 & 온천 리조트를 보유
	현대엘리베이	27,839	31.8	1.1	현대그룹의 계열사로 승강기 부문 국내 1위 업체. 현대아산의 지분 67.6%를 보유
DMZ 세계평화공원	코아스	777	N/A	0.9	책상, 서랍, 캐비닛, 의자, 판넬 등의 사무용가구 전문 생산업체. 파주 부동산 보유 사실이 부각 됨
	퍼스텍	2,614	69.3	1.3	후성그룹 계열의 방위산업 전문업체로 과거 국방연구원과 지뢰제거 로봇 개발 사실이 부각
	누리플랜	401	N/A	1.0	방음벽, LED조명등기구, 난간휰스, 보도육교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도시경관전문회사
	삼릉물산	1,160	28.4	0.9	카툰팩(음료 포장 용기) 전문 생산업체. 파주 공장 부지 및 공장 소유 사실이 부각 됨
	이화공업	2,406	132.4	2.6	토목, 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서 파주에 창고부지 소유 사실이 부각 됨
	자연과환경	886	N/A	1.7	환경생태복원사업, 조경사업, 환경플랜트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모헨즈	927	37.5	1.1	40년이 넘는 업력의 레미콘 업체. 과거 DMZ 평화공원 조성 논의 당시 수혜주로 분류 됨
	코리아에스이	444	11.4	1.0	일본 SE사와 합작을 통해 설립된 영구앵커(토목 공사 시 안전 확보 자재) 전문 생산업체
	대창스틸	1,170	55.8	0.3	철강재를 가공하여 건축, 조선업 분야에 공급중인 업체로 경기도 파주에 공장 소유 사실이 부각 됨
	웰크론	1,287	N/A	0.4	지뢰제거용 EOD 방호복 등을 생산하는 방산기업으로 DMZ 지뢰제거 추진 시 수혜 기대
농약/농기계/ 비료지원	남해화학	9,066	30.6	1.5	비료 생산 및 판매업체. 국내 최대의 비료 생산설비 보유
	경농	1,638	14.7	0.4	농약 제조 및 판매업체. 종속회사로 비료 생산업체인 조비를 보유하고 있음
	조비	888	76.5	0.9	비료 생산업체로 친환경 맞춤형비료, 완효성비료, 4종비료 등 다양한 비료를 생산·판매
	효성오앤비	696	11.8	1.0	농협중앙회를 통해 전국에 유기복합비료, 혼합유박비료, 혼합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업체
	동양물산	1,818	116.1	1.3	트랙터, 콤파인, 이앙기 등 각종 농기계 제작 및 다양한 종류의 담배필터사업 등을 영위
	대동공업	2,155	19.9	0.9	농용트랙터, 콤파인, 이앙기, 경운기 등 농업용기계를 전문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농기계전문업체
	아세아텍	668	15.7	0.7	다목적관리기, 스피드스프레이어, 축산작업기, 트랙터, 이앙기 등이 주력인 종합형 농기계제조업체
음식료	오리온	49,219	63.4	2.2	과거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초코파이가 간식으로 제공된 뒤 인기를 끌었던 점이 부각, 수혜주로 부상
	농심	19,708	21.7	0.8	과거 신라면이 중국 등을 통해 북한에 밀수입돼 장미당에서 거래됐던 점이 부각, 수혜주로 부상
	매일유업	6,087	16.6	1.0	북한 유아동 인구에 단백질 공급 및 국내 유제품 소비 침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수혜주로 부상
	KT&G	134,272	11.6	1.4	과거 북한의 광명성총회사와 함께 평양 공장에서 담배 생산 경험이 있어 차후 협력 재개 가능성 제기
'대북송전	제룡산업	1,430	16.1	2.3	변압기 제조업체로 주력제품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 아몰퍼스 변압기
	대원전선	1,314	N/A	3.7	전력 공급 및 정보통신망 구축, 전기전자기기, 전력 및 통신케이블(광케이블포함) 제조 및 판매업체
	제룡전기	2,417	67.8	0.7	변압기, 개폐기, GIS 제조 및 판매 업체. 주력 제품은 공공기관·아파트 등에 사용되는 아몰퍼스 변압기
	선도전기	1,314	N/A	1.1	산업용 플랜트의 전력설비에 공급되는 절연개폐기, 제어시스템 등을 제작·판매하는 중전기 전문업체
	광명전기	1,946	34.2	1.7	전력 수배전반 업체 중 최초로 ISO9001 획득. 피앤씨테크(주)를 인수해 계전기류, 자동화설비 사업영위
	세명전기	1,624	32.6	1.6	송전, 배전 및 변전선로용 금구류 제조 및 판매업체.
	이화전기	2,036	N/A	0.3	다양한 전원공급장치 및 전력변환 장치를 생산 공급하는 중전기 전문회사
	일진전기	2,280	18.5	0.9	초고압 케이블, 변압기 등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체
	LS산전	20,580	N/A	1.2	전기, 전자, 계측, 정보 및 자동화기기류와 동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및 유지보수 업체
가스관	동양철관	2,284	12.8	0.5	강관 전문 생산업체. 후판과 코일을 원재료로 가스관, 송유관, 일반배관, 강관말뚝, 나관 등을 제조·판매
	삼현철강	1,010	7.2	0.2	POSCO 열연판매점으로 가스관과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는 강관의 주원료인 열연제품을 판매 중
	하이스틸	787	13.0	1.0	강관 전문 제조·판매 업체. 대구경(가스수송 가능), 심해저용 후육관(미국석유협회 인증) 생산 가능
	대동스틸	1,040	26.8	0.1	강관의 주원료인 열연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어 가스관사업 확대 시 수혜 가능
	휴스틸	1,052	33.9	0.7	신안그룹 계열의 강관제조업체. 주요제품으로는 OCTG, 송유관, 철탐구조용 강관, 전선관 등
	화성밸브	687	150.5	1.5	플랜지식 밸브, 나사식 밸브, 매물 용접형 밸브, LPG용기용 밸브 생산 업체
희토류/ 자원개발	헤인	853	40.5	0.2	비금속광물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주)헤인자원의 역할이 부각되는 중
	유니온**	826	N/A	0.9	백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등 내화재, 터널시공자재 등 특수시멘트를 판매하는 시멘트 전문업체
	EG	919	N/A	1.9	페라이트 자성소재 제조·판매업체. 유기금속 회수 및 무역사업을 하는 EG메탈을 종속회사로 보유
	에스아이리소스	610	34.5	0.9	유연탄을 생산·판매하는 자원개발 전문기업. 차회사 우글레고르스크우굴이 러시아 내 석탄 채굴권 소유
	수산중공업	1,112	22.7	1.6	유압브레이커, 트랙크레인(이상 국내 점유율 1위), 유압드릴 등의 건설장비 제조업체
포스코엠텍	2,511	209.8	1.1	위탁운영중인 포스코 마그네슘공장이 북한과의 원료 사업 추진 가능성 제기되어 수혜주로 부상	

주: 2018년 4월 30일 기준 산출. *은 2018E 기준, **은 테마 중복
 자료: Quantwise, 2018 Theme Book, 한국투자증권

<표 3-2> 남북경협 관련주

(단위: 억원, 배)

분류	종목명	시가 총액	TTM		비고
			P/E	P/B	
건설	남광토건**	2,943	N/A	0.4	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인 남광엔케이(주)를 설립하여 개성공단 내 건축공사 수행
	삼부토건	1,822	1239.4	2.7	국내 도급공사 및 자체공사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중견 건설업체. 남북철도 및 도로 관련 사업 영위
	일신석재	2,308	7.4	0.6	통일그룹 계열의 건축석재 가공·판매 업체. 석산개발 및 채석, 건축석 수출입, 석재공예품 판매도 영위
	다스코	1,679	7.5	0.7	고규격 가드레일, 강성 차등형 DS 가드레일, 교량용 강재방호책 등을 생산하는 업체
	SG	1,053	N/A	0.6	도로 포장용 아스콘 및 레미콘 생산, 판매업체
	스펙코	781	23.9	0.9	재생아스콘 플랜트부문 설비 생산업체로써 삼익악기(002450) 등을 계열사로 보유
	도화엔지니어링	3,473	N/A	0.4	종합엔지니어링 컨설팅업체. GTX A노선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남북철도사업 추진시 수혜 기대감 반영
	한국종합기술	930	22.3	1.2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조정, 도로, 교통, 교량, 터널, 철도, 환경 사업을 종합 수행하는 업체
	남화토건	2,043	3.0	0.1	토목·건축·전기공사, 조경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체. 남화산업, 남화개발, 광주방송 등을 계열사로 보유
	계룡건설	1,728	7.1	0.6	건축, 토목, 분양, 패션 아울렛, 고속도로휴게소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
	삼호개발	1,723	8.7	0.9	도로공사, 지하철공사, 항만시설공사, 간척지공사, 택지 및 산업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 영위 업체
	동신건설	995	57.1	0.5	사회간접자본, 토목사업, 건축사업, 문화재공사 등의 국내도급공사 위주의 건설업체
	범양건설	761	10.9	0.7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축·토목·대안·SOC·BLT 공사 등 관공공사 중심의 종합건설업체
	동아지질	2,409	N/A	0.5	터널 굴착과 지방개량부문에서 반독점적 지위를 보유한 지하공간 개발 전문업체
	일성건설	1,626	8.5	0.5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정공사 및 아파트분양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체
	현대산업	34,978	15.1	0.3	파주 운정 신도시 인근에 자체사업 용지를 확보한 상황. 경기 서북부지역 개발 호재 수혜 예상
	현대건설	70,822	6.8	0.2	과거 경수로 등 대북 사업 경험이 있는 유일한 건설사. 대북 관련 수주 규모는 약 7000억원에 달함
	태영건설	8,939	N/A	0.6	부대이전 부지로 주택분양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도시개발 조합에 따른 수혜가 기대됨
유신	575	34.3	0.6	도로, 공항, 철도, 도시계획, 감리 등 다양한 설계 사업 영위	
희림	812	19.2	1.4	건축물 설계와 감리 서비스제공업체로 Turn Key 영역에서 강점 보유	
건설기계	두산파벳	32,681	11.6	0.9	두산그룹 계열의 외국기업지배 지주회사. Compact, Heavy, Portable Power 건설기계 제조 및 판매
	디와이	1,669	7.8	0.5	콘크리트 펌프카, 자동세차기, 카고크레인, 골프카 등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
	에버다임	1,827	9.3	0.9	건설기계사업 및 소방차 등의 차량사업, 드릴사업, 중장비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
	두산인프라코어	21,335	13.1	1.2	건설기계, 공작기계, 엔진 및 각종 어태치먼트와 유틸리티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기계기업
	현대건설기계	18,765	36.8	1.5	중대형 굴삭기가 주력인 건설장비 업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적 분할, 최대주주는 현대로보틱스
	진성티이씨	2,563	23.8	2.3	건설중장비의 케도를 받쳐주는 하부주행체를 생산·판매하는 업체. 상·하부롤러, 스포크렛 등이 주력품
	대창단조	1,008	8.2	0.6	자동차, 중장비용 단조부품 업체. 트랙 체인, 롤러 등을 제조 및 판매
흥국	675	9.8	1.2	굴삭기의 하부롤러인 트랙롤러, 캐리어롤러 및 건설기계 및 자동차용 단조품을 생산하는 업체	
철도	우원개발	1,390	41.5	2.2	도로, 산업단지조성, 철도, 지하철, 특수공법, 하천, 항만 공사 등을 영위하는 토공사업 전문 건설업체
	대아티아이	3,607	21.8	1.2	철도신호제어시스템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상위권의 시장점유를 유지 중
	대호에이엘	1,381	22.5	1.2	현대제철 철도차량 1차협력사. 2011년 철강소재 및 철도차량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대호하이텍 설립
	리노스	1,376	23.5	0.8	무선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IT사업 분야를 통해 주요 정부기관 및 열차무선통신시스템 구축·운영 중
	서암기계공업	702	191.9	0.7	공작기계(기어류, 척&실린더 등) 제조 업체. 신규사업으로 철도차량용·산업로봇용 기어 시장진출
	특수건설	1,074	80.3	2.2	철도, 도로 입체화 공사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 중. 국내외에서 다수의 시공실적 보유
	푸른기술	888	N/A	0.8	금융자동화, 역무자동화, 특수단말시스템 등 무인 자동화기기 관련 제품 생산 업체
	에코마이스터	1,055	11.1	0.4	슬래그를 재활용하는 환경사업과 철도차량 가공기계 및 계측·검수 장비를 공급하는 철도사업 영위
	부산산업	686	N/A	0.4	레미콘 제조·판매 업체. 철도계도 시공에 특화된 계열사(태명실업, 티엠트랙시스템)를 보유
	현대로템	22,695	4.9	0.1	철도차량 완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철도사업 외에도 방위산업과 플랜트사업 등을 영위
한라	2,967	8.3	0.7	지난해 경의선 성산천교 외 유지보수 공사(철도공단, 233억원 규모)를 수주하는 등 관련 사업 영위 중	
시멘트	쌍용양회	30,080	14.7	0.2	동해와 영월에 시멘트 공장 보유. 쌍용레미콘(최대주주), 쌍용정보통신, 쌍용머티리얼을 계열사로 보유
	성신양회	2,281	40.5	0.2	시멘트, 레미콘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 주요상표로 천마표시멘트, 성신레미콘 등
	유니온	826	6.4	0.8	백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등 내화재, 터널시공자재 등 특수시멘트를 판매하는 시멘트 전문업체
	현대시멘트	4,407	14.4	0.4	강원도 영월과 충북 단양 등에 공장 보유. 2017년 한일시멘트로 피인수. 주요상표는 호랑이표시멘트
	삼표시멘트	6,012	17.6	0.3	시멘트, 석회석 등 시멘트 사업만 영위. 구)동양시멘트, 2017년부로 삼표에스씨(주)로 최대주주가 변경
	한일시멘트	12,525	98.8	0.9	시멘트(특수시멘트 포함) 제조 및 시멘트 2차 제품(레미콘, 레미탈, 고강도 혼합재) 판매 업체
	고려시멘트	1,060	8.9	0.5	강동그룹 계열의 시멘트 전문업체. 시멘트(포틀랜드, 슬래그, 저발열), 레미콘 등의 제품을 생산
아세아시멘트	5,766	54.9	0.3	아세아그룹 계열의 중견 시멘트 제조업체. 시멘트, 레미콘, 드라이모탈 사업을 영위	

주: 2018년 4월 30일 기준 산출. *은 2018E 기준, **은 테마 중복
 자료: Quantwise, 2018 Theme Book,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